

전주세계소리축제 연차보고서



(549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T 063-232-8398 F 063-232-8399

W www.sorifestival.com

enjoy_sorifestival

sorifestival

sori_festival

sorifestival

주최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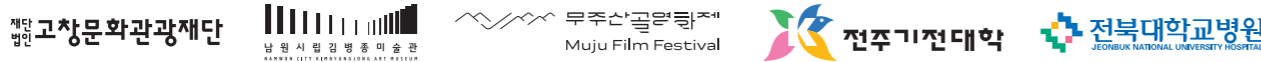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SPONSORS ◆



◆ PARTNERS ◆



◆ CONTENTS ◆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04
2023 프로그램	06
2023 찾아가는 소리축제	08
2023년판 제비노정기 <축제뉴스>	11
소리길 잇는 곳마다 고고천변 <축제, 잇다>	14
연꽃배에 고이 담겨 떠오른 <축제평가>	18
어화동동 사랑의 시선으로 <전문가 리뷰>	20
도원결의 맺은 천군만마 <축제 속 사람들>	22
2023 스태프	26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28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 주 제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
- 일 시 **2023. 9. 15. (금)~24.(일) / 10일간**
-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북 14개 시·군
- 주최/주관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2023 KEYWORD: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

매년 주제를 통해 축제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리축제가 올해부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키워드를 제시해 주제 안에 갇히기 보다 축제의 본질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소리축제의 키워드는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이다. ‘상생’에는 전염병, 환경문제 등 인류의 여러 어려움을 음악으로 극복하겠다는 의미와 전통음악이 월드뮤직, 한국의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한국의 소리와 서로 만나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회복’은 코로나 이후 전면 대면 축제의 첫해로 축제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전통음악의 정통성과 공연의 예술성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로고



2023년 소리축제 로고가 새롭게 변화했다. 새 로고에는 소리축제를 대표하는 소리를 영어 표기한 ‘SORI’ 각 글자에 각각의 의미를 담았다.

‘S’에는 전통과 현대의 이어짐을 형상화 했고 ‘O’에는 널리 퍼져 나가는 우리 소리의 이미지를 담았다. 한국의 전통매듭을 차용한 문양으로 표현한 ‘R’에는 전통과 동시대, 지역과 세대, 한국과 세계가 축제의 장 안에서 화합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I’에는 동시대 한국의 소리를 미래로 확장하겠다는 소리축제의 의지를 디지털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담았다.



포스터

새 로고를 시각화하여 디자인한 2023 소리축제 포스터는 ‘오늘 우리 소리를 내일로 잇는 축제’라는 콘셉트로 트렌디하고 스타일 리쉬하게 표현했다. 자연을 닮은 일상의 네 가지 색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이미지화한 로고의 주조색 활용을 통해 소리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포커스 2023 Focus on 2023

- 개막공연 <상생과 회복>
- 폐막공연 <이희문 오방神과 춤을!>
- [영국] 루크 제람 <가이아>
- 경기전의 아침 <풍류뜨락>
- 경기전의 아침 <김대진&박재홍 : 포핸즈>

전통 : 오래된 걸 Being Heritage

- 국창열전 완창판소리 <김일구, 김수연, 정순임, 신영희, 조상현>
- 라이징스타 완창판소리 <이봉근, 김윤희>
-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한윤경, 정윤형, 이이화>
- 산조의 밤 <김일륜, 김경아>
- 시나위·춤 그리고 씻김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남해안별신굿>
-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굿>



창작 & 컨템포러리 : 동시대 우리 음악 Creation & Contemporary

-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 천하제일탈공작소 <오셀로와 이야기>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Concert Meditation <반향 : 묵(默)>
-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레퍼토리 시즌 I <아르누보>
-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호랭이가 답삭 물어갈 뽕파야>
- 악단광칠
- 블랙스트링
- 김소라 <LANDSCAPE>
- 딸 TAAL
- 소리프론티어 - 전주판소리합창단, 매간당, 핑크데이즈
-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음악극 <경계>
- 전북대학교 창극 <오즘 심청>



클래식 & 대중음악 :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오케스트라
- 전주세계소리축제 x 전북CBS <라포엠 & 정훈희>

해외초청 & 월드뮤직 : 대화와 소통 World Music Today

- [캐나다 x 세네갈] 콘스탄티노플 & 아블라예 시스코
-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
- [한국 x 호주] 핸드 투 어스
- [에스토니아] 마리 칼쿤
- [우즈베키스탄] 소그디아나 챔버 오케스트라
- [폴란드] 미치 & 미치와 헤테로포닉 그룹
- [아랍에미리트] 타와슬 앙상블
- [칠레] 민속앙상블 트란스 아틀란티코
- [베트남] 잘라이성 소수민족 자라이 민속음악단
- 동아시아 문화도시 with 전주세계소리축제



어린이 소리축제 : 헬로우! 패밀리 Kids & Family

- 국립민속국악원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
- 전북어린이음악제
- 어린이 오감체험 <칼림바 만들기>
- 어린이 그림그리기 <지구야, 사랑해!>
- 어린이 오감체험 <마실가듯, 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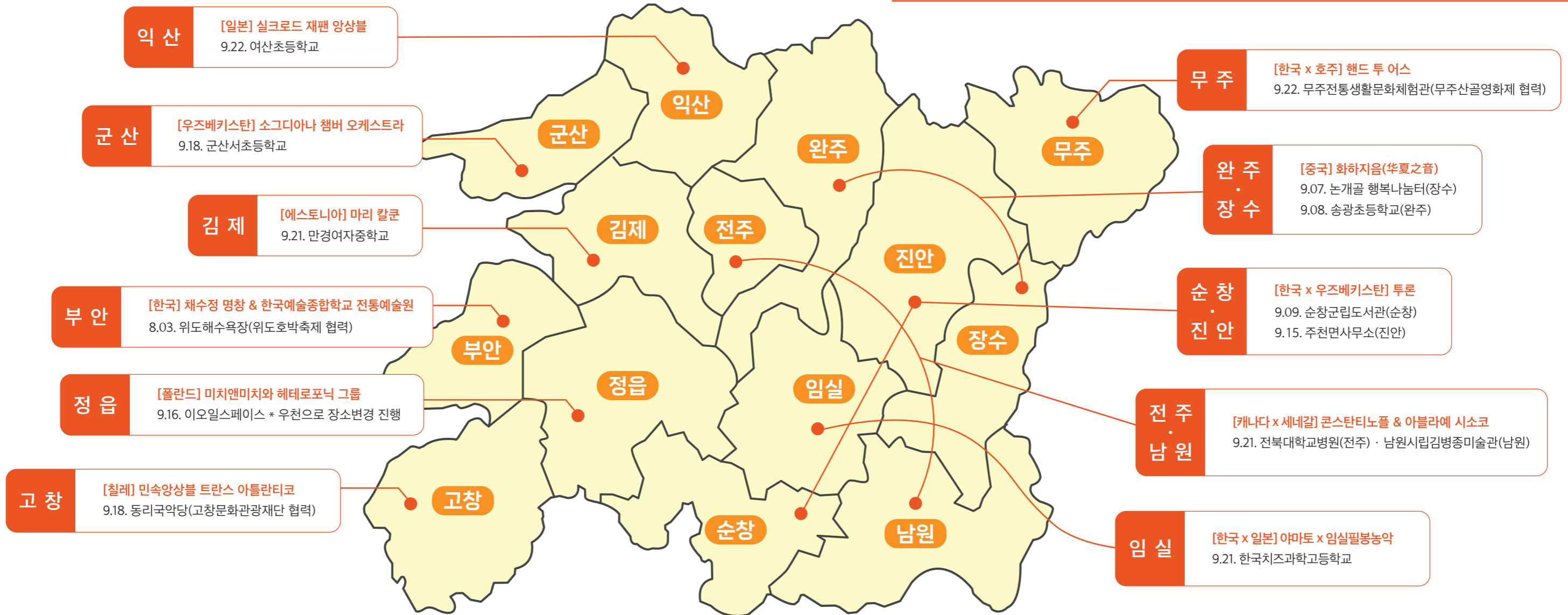
찾아가는 소리축제 & 아카데미 : 글로벌 랩 Glocal Lab

- <That's my Jam> in 전주세계소리축제
- 루프탑 시리즈 No.1 스탠딩 B구역 [3부]
- 판소리 아카데미
- 월드뮤직 워크숍
- 찾아가는 소리축제
-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시상식
- 렛츠고 피크닉 in 소리축제



2023 찾아가는 소리축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전북 14개 시군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관, 갤러리, 병원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세계 곳곳의 음악과 문화를 다채롭게 선사했다.



2023 JEONJU INT'L SORI FESTIVAL

Thanks For
Amazing Year

| Visitor ——— **73,965** | Artists ——— **1,105**
| Programs ——— **92** | Countries ——— **12**



2023년판 제비노정기

축제 뉴스



**신임 이왕준 조직위원장과
김희선 집행위원장 이취임, 새로운 변화**

지난 2월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소리축제의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 이어 3월에는 김희선 국민대 교수가 신임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두 위원장은 소리축제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의기투합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시작된 올해 소리축제는 먼저 집행위원회를 예술분과 위원회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최고의 예술가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괄목할만한 성과와 가능성을 남기며 올해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현대적 감각의 소리축제 새 로고 탄생**

20년 만에 현대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소리축제 로고. 기존 로고는 전주 완판본 판소리 '열녀춘향수절가'에서 한 글자씩 집체하고 자연의 다채로운 색상을 조화롭게 해 소리축제의 고유성과 독특함을 담아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 로고를 제작, 로고는 '전통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축제'라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SORI 알파벳 하나하나에 축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담아내 독특한 모양으로 표현했으며, 기존 로고의 다채로운 색상을 반영해 소리축제가 가진 정체성과 고유성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다.





최고의 흥행작 <심청 패러독스> 제5회 대한민국 판놀음에 초청

2021년, 2022년 소리축제가 기획한 최고의 흥행작! 2021년 '춘향가'를 통해 '트리오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세 여류 명창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가 2022년 '심청가'를 모티브로 한 작품 <심청 패러독스>를 선보이며, 서로 다른 성음과 개성을 통해 따로 또 같이의 무대를 입체적이고 조화롭게 실현했다. 2023년 4월 19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주최의 '제5회 대한민국 판놀음'에 초청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판소리의 매력과 함께 관객들에게 처절한 슬픔이 깃든 심청이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전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다큐멘터리 <두 개의 유네스코> 소리축제가 근간이 되다!

2018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소리판타지'에서는 특별한 합동무대가 펼쳐졌다. 바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남풍'의 농악 연주와 베트남 '닥락성 민속공연단'의 공연무대가 함께하는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 금태경 감독은 이 위대한 두 문화유산의 만남을 놓치지 않고 모티브 삼아 다큐멘터리 <두 개의 유네스코> (2023)에 담아냈다. 소리축제가 이 작품의 근간을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올해 5월,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 시민 대상 특별 상영회'를 통해 상영됐다. 이 영화는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발표회 및 프레스 컨퍼런스 전주와 서울 투트랙 운영

2023 소리축제의 목표 중 하나는 외연 확장, 이에 따라 전주에서만 진행되던 '프로그램 발표회 및 프레스 컨퍼런스'를 올해 전주와 서울로 나누어 진행했다. 언론사들과의 네트워크 및 홍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주에서는 올해의 방향성과 라인업을 전달하는데 집중, 반면 서울에서는 소리축제의 인지도가 폭넓지 않다고 판단해 소리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알리면서 동시에 올해 주요 내용들을 짧은 쇼케이스와 함께 전달했다. 성과는 좋았고, 이 관심들이 소리축제에 대한 진성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를 남겼다.



무장애(Barrier Free)공연·체험과 설치미술 등 ESG 관점의 다양한 시도

사회적, 환경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현시대, 소리축제도 이 문제들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연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내부의 의지는 더 확고해졌으며,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은 프로그램과 운영 면에서 드러났다. 소리축제에서 처음 시도된 '무장애 (Barrier Free)공연', 지구의 모습을 축소해 담아낸 영국 설치 미술가 루크 제람의 설치 작품 '가이아', 그 아래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지구야, 사랑해!' 등의 프로그램과 그 외 푸드트럭 대화용컵 사용하기 등 ESG 관점의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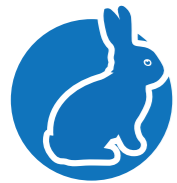
제3회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시상식 소리축제서 개최

소리축제 기간 특별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재)월드뮤직센터 주최로 진행된 '아시아월드뮤직어워드'! 이 상은 아시아 음악을 널리 알리고 음악을 통해 문화교류를 실천하는 세계의 우수한 아티스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아시아 최초의 월드뮤직 어워드다. 제3회 수상자는 최고의 소리꾼으로 평생을 우리 소리를 알리는데 힘써 온 안숙선 명창, 대명창의 수상인 만큼 소리축제에서의 시상식 개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안숙선 명창과 제자들 그리고 국악계 인사들이 참석한 시상식 현장, 안숙선 명창이 즉석에서 새타령을 부르자 제자들이 함께 올라와 같이 부르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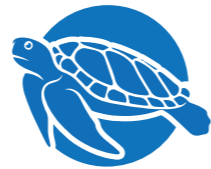
지역민들과 함께한 신나는 댄스파티 폐막공연 현장

올해 폐막공연은 화려한 색채로 휘감긴 무대와 관객석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뛰노는 연주자와 관객들로 공연 내내 들썩였다. 개성 있는 소리와 무대로 분위기를 압도해버린 이희문 오방 神과 그리고 공연에 함께 참여한 전라북도 댄스팀(남현자무용단, 팬시라인댄스, 포스댄스키즈, 포스댄스컴퍼니, 춤동인) 이 무대를 즐기기에 온 관객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023 소리축제의 폐막공연을 신나게 즐겼다. 그 순간 누구 하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었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피날레를 장식한 폐막공연은 내년 소리축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소리길 잇는 곳마다 고고천변 축제, 잇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확대

소리축제 사업의 한 축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교류사업이다. 소리축제는 그간 지역의 콘텐츠와 예술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왔다.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에 힘써왔으며 지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

올해 축제 기간 선보인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는 그 결실 중 하나다. 판소리를 통한 국제 협업 작업은 2017년 쿠아트로 미니말(일본, 멕시코)과 소리꾼의 만남에 이어 2019년에는 플라멩코 비엔날레와 진행됐다. 세 번째 판소리 프로젝트는 중동, 페르시아 음악과 한국의 판소리, 동·서양 두 오리엔트가 만나 새로운 소리를 탄생시킨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2023-2025년 캐나다 투어 등 상호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문화관광국과의 쌍방향 교류사업을 통해 올해 '타와슬 앙상블'이 초청되었고, 11월에는 월드뮤직그룹 '듀오벳'이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초청되어 한국 음악의 멋을 선사했다. 2024년에도 아부다비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 '동아시아 콘서트 <호우지시절>'은 한국·중국·일본 3국의 전통 음악을 한 자리에 선보였던 무대로 지역음악인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역 명소 활용 및 공간 재해석 통해 지역 거점 연결

소리축제는 올해 지역의 명소를 활용하고 공간의 재해석을 통해 지역 거점을 연결시킴으로써 전주를 포함한 전북 지역 곳곳에 축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공연과 역사성이 담긴 지역 명소를 결합해 기획한 특별 명소공연들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감각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전주 동헌에서 열린 '국창열전 완창판소리'와 전주대사습청에서 펼쳐진 '청춘 예찬 젊은판소리' 공연은 한옥 경관을 배경으로 전통판소리의 오롯함을 느끼게 했다. 우천으로 인해 전라감영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한 '경기전의 아침 - 풍류뜨락'은 한옥의 고즈넉함 속에 동서양 음악의 조화로움을 담아냈으며, '경기전의 아침 - 김대진 & 박재홍 : 포핸즈'는 한옥과 자연의 정취가 어우러진 가운데 아름다운 피아노 듀오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경기전을 찾은 관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그간 전북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인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올해 학교를 벗어나 지역 도서관, 갤러리, 병원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공간성을 확장했다.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5년부터 미래 관객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찾아가는 소리축제'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한 것이다. 올해는 순창군립도서관,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등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소개했다.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있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한다.





미디어 및 방송 연결의 협력 강화와 외연 확장

올해 소리축제가 내세운 ‘확장’의 개념은 축제성이나 공간성뿐만은 아니다.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외연 확장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변화이기도 하다.

‘소리축제열차’를 활용해 서울 기자단이 전주까지 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 기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실제 총 400여 건의 언론보도 중 한겨레 등 중앙지에서 보도된 건수는 50여 건 이상으로 홍보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월간객석, 중앙SUNDAY, 서울문화투데이 등과 연계한 기획 기사들도 이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미디어 및 방송사와의 협력도 대폭 확장했으며, KBS, 한경아르떼TV, 국악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중계촬영도 진행했다. 10월 중 KBS에서는 개막공연 ‘상생과 회복’이 방송되었으며, 11월 중 국악방송TV에서는 ‘경기전의 아침-풍류뜨락’을 만날 수 있었다. 11월과 12월 중에는 한경아르떼TV를 통해서 ‘국창열전 완창판소리’의 감동적인 무대가 방송되었고,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간 진행된 유튜브 생중계는 축제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에게 관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관람의 폭을 넓혔다.



각 기관 연결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올해 소리축제는 각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국립극장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기획과 투자, 공연 등 전 범위를 아우르는 공동작품 제작과 공동사업 개발 예술인력 지원과 인적·정보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부산국악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재)월드뮤직센터, 전주기전대학, 폴란드 IAM, UAE 아부다비관광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및 아티스트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지난해 교류 관련 논의를 진행했던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문화관광국과는 올해 아티스트 교류를 상호 진행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갔다.

외부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리축제열차’는 9월 15일 ‘개막공연’에 맞춰 전주에 도착해 16일 마티네 프로그램 ‘경기전의 아침’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된 프로그램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등 각 나라의 대사과 기자단, 예술가 및 공연 관계자, 사전 예약 관람객 등 총 200여 명이 ‘소리축제열차’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으며, 이를 위해 대사관 및 문화예술 기관 등 각 기관과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하고 협력을 진행했다.



연꽃배에 고이 담겨 떠오른 축제 평가



“지난해 대비 3만명 이상의 방문객 증가”

판소리 보존 및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

35.6%

국내의 음악을 소개하고 아티스트들이 교류하는 장

32.1%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축제

14.3%

지역예술가 및 지역민을 위한 축제

10.1%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축제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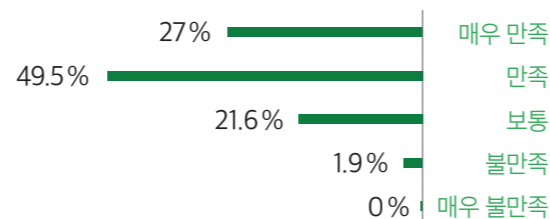
소리축제의 이미지와 포지셔닝

전통음악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 음악 흐름에 주목하는 세계화 된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강화, 바람직한 축제 브랜드로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만족도 평가

평균 만족도 점수가 4.02점(5점 척도)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2021년부터 계속 4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음악의 확대 및 정통성 있는 무대 구현

33.1%

수준 높은 작품과 출연진 구성을 통한 축제의 예술성 확대

33.1%

야외 행사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축제성 강화

21.2%

지역 관광지를 활용해 공연장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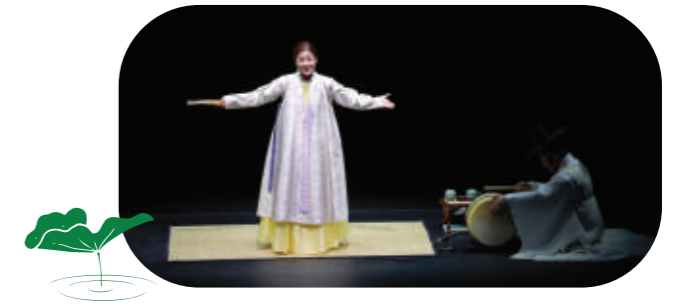
11.3%

기타

1.4%

축제성과 평가

공연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국악을 중심으로 한 소리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전북 지역민과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강하게 자리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방문의향 및 추천의향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는 평균 4.32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평균 4.2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축제에 대한 호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01년 첫 축제부터 지금까지 소리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소리축제의 22년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리축제는 지난 20여 년간 전주의 가을을 장식하는 축제였다. 관람객에게도 나름의 기억되는 축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아티스트들에게도 서고 싶은 무대, 내가 서본 자랑스러운 무대 등 다양한 의미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축제를 만들어 갔던 모두에게도 그럴 것이다. 소리축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었고, 전통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음악으로 세계와 교류할 수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소리축제를 통해 성장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소리축제가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주체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출처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보고서 中 (주관 : (사)문화연구창)



어화둥둥 사랑의 시선으로 전문가 리뷰



“소리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까지도 되새기게 해주는 품격 있는 무대”

남녀 성악가와 소리꾼의 목소리의 어우러짐도 탁월했지만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이 지닌 감동의 포인트들이 오케스트라 음향을 통해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며 “상생과 회복”을 모토로 한 2023 소리축제의 의미를 더할 나위 없이 살려주었다. 이번 개막공연은 2023년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체에서 펼쳐질 “상생과 회복”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하며, 소리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까지도 되새기게 해주는 품격 있는 무대였다.

이미배 교수 /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음악학자

“소리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으뜸이란 걸 확인”

‘국창열전’의 무대를 지켜보면서 나는 안숙선 명창 시절을 떠올렸다. 판소리가 소리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라 소리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으뜸이란 걸 확인했다. 이번에 ‘국창열전’은 확실하게 ‘명창의 귀환’이라고 이름 부칠만한 무대로서 가치가 있다. (출처_굿스테이지 10월호)

윤종강 / 국악평론가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을 선사하며 ‘귀’ 호강을 할 수 있는 자리”

젊은 세대에게는 평소 즐겨 듣는 현대 대중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결의 노래로 공연 초반에는 당황스러울 법하지만 평온한 음색과 잔잔한 연주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을 선사하며 ‘귀’ 호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90여분 가량 진행된 공연에서 전라감영을 채운 50여 명의 관객 중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도미니카공화국, 싱가포르, 세르비아 등 약 7개국 대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가락에 눈을 감고 음미하고 즐기는 모습은 동·서양의 조화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전현아 기자 / 전북일보



“세계소리축제의 한 모범적 전형”

세계소리축제의 한 모범적 전형과 만났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re:Orient 리:오리엔트> 애기다. 소리축제의 정체성에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판소리를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 음악(vocal music)을 모아보겠다는 애초의 취지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략) 음악감독의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넓고도 깊었다. 무대가 5개의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이종민 교수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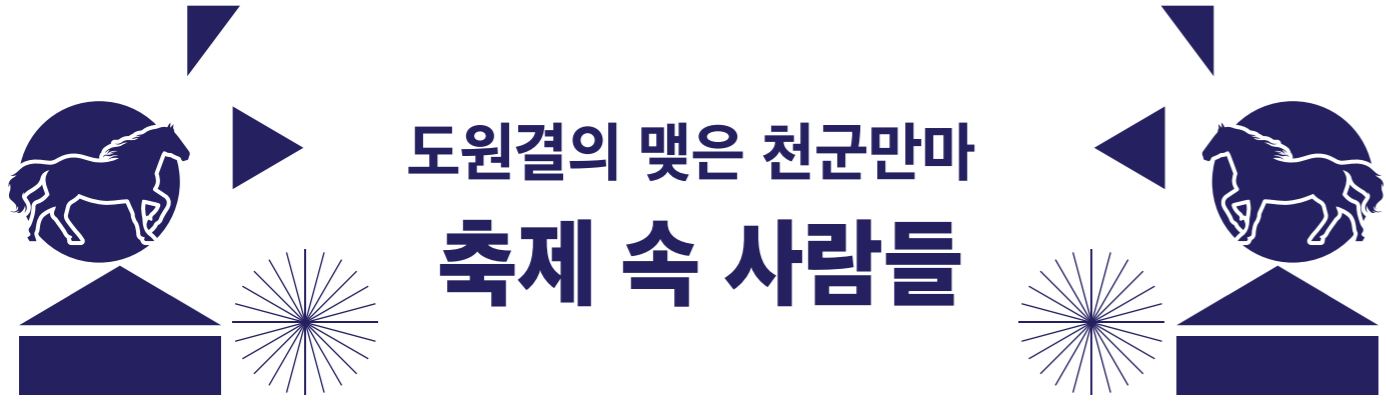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잘 선택된 음악들이 벌이는 향연”

소리축제의 위상을 잘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싶다.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전통음악과 전통을 기반으로 만든 해외의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음악을 소개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잘 선택된 음악들이 벌이는 향연이다. (중략) 잘 만들어진 예술이 전시되는 이런 축제의 장에서 소리프런티어가 품었던 따뜻함이 좋은 결과로 빛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천재현 / 정가악회 대표





도원결의 맺은 천군만마 축제 속 사람들

아티스트 & 참여 제작진

이봉근 소리꾼

오랜만에 전통 판소리를 많은 분들 앞에서 들려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봉근과 적벽'을 통해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객분들에게 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적벽가 완창>은 오랜 시간 판소리를 해 온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판소리 그 자체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통 판소리가 가진 멋과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그 힘이 판소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전주세계소리축제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소리축제 <라이징스타 완창판소리 - 적벽가>



유예진 기획 / 연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한 행복한 늦여름이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열정적인 무대도 즐기며 공부할 수 있어 더욱 풍요로운 한 때가 되었습니다. 음악 외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저희가 늘 고대하던 것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이라는 공간에 저희의 이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즐겁게 무대에 섰습니다. 그렇게 전주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공감과 지지는 저희에게 깊은 용기를 주어 축제가 끝난 지금도 종종 곱씹고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성사된 모든 크고 작은 만남에 대해서, 그 만남의 장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측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 저희들이 만나 팀을 꾸려나가고 있듯,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가분들과 한 자리에서 고민하며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면서 소감을 마쳐봅니다.

2023 소리프론티어 선정팀 : 매간당



아티스트 & 참여 제작진

오해룡 포스댄스컴퍼니 대표

2023년의 가을을 소리축제와 함께해서 뜻깊었습니다. 폐막공연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음악과 춤이 하나가 되어 많은 분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어 자부심이 생기는 23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감사합니다.

2023 소리축제 폐막공연 <이희문 오방神과 춤을!> 안무



가미노 치에(神野知恵)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 특임조교

동아시아 문화도시 with 전주세계소리축제 일환의 사업으로, 일본 시즈오카현 출신의 아악 쇼(笙) 연주자 오츠카 준페이씨를 중심으로 일본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크로드 재팬 앙상블을 전주에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학교공연, 한·중·일 공동 공연, 단독공연이라는 세 공연에서 다양한 일본 음악 분야나 악기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판소리, 기악 연주자들과의 연주 및 뒤풀이를 통해 깊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닌 포용력을 느꼈고, 뿌듯한 마음으로 귀국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류 기획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with 전주세계소리축제 자문



스태프 & 소리천사

박소영 소리축제 홍보팀원

올해 처음 축제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특별한 경험들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여러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며 그들이 노랫말 속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고민도 해보고, 그 소리를 구현하게끔 만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보는 관점이 다양해졌습니다. 축제를 계기로 앞으로의 문화생활이 더욱 다채로워질 것 같아 뿌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팀워크의 힘을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이 강조하는 팀(Team)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올해 축제를 함께 치르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보팀! 올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소리축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



강민정 소리축제 기획팀원

해금 전공자로서 더 관심이 갔고 궁금증이 많았던 전주세계소리축제. 작년엔 소리천사로, 올해는 기획팀 구성원으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아티스트 및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후에 함께 올린 공연들 그리고 공연을 즐기며 웃고 있는 관객들을 보았을 때의 짜릿함과 울컥함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나 살아온 전주에서 매해 열리는 대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던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리축제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음악, 세계 각국의 고유한 음악들을 더 널리 알리며 오래 보존해 줄 방법과 수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매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닿길 고뇌하는 축제 조직위에 존경을 표하며, 다시 한번 올해 축제를 준비하고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박기남 무대총괄감독

나를 설레게 만드는 단어들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축제, 전주, 소리천사 등이 있습니다. 매년 축제를 하다 보니 봄만 되면 올해는 또 언제 축제가 열릴지? 어떤 공연이 있을지? 올해도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전 관객들을 맞이했는데 몇 년간 비대면으로 했던 공연들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역시 공연은 관객과 직접 마주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가 다양한 공연들과 관객들을 만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스태프 & 소리천사

이슬기 기획팀

제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리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소리축제는 코로나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았던 때라 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었다면 올해는 생각하던 축제 그 모습 그대로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획팀에서 활동하며 세계 여러 아티스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점이 참 영광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음악과 공연을 좋아해서 세계의 다양한 소리를 접하고 공연을 함께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무대 뒤 백스테이지의 모습처럼 축제를 만드는 많은 분의 뜨거운 노력을 함께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모든 공연 관계자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갈 우리 멋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응원을 보냅니다. Viel Glück!



박주환 홍보팀

전라북도 최대 공연예술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소리천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소리천사는 평소 음악과 축제를 둘 다 좋아하는 저에게 최적의 대외활동이었는데요. 홍보팀으로 활동하면서 티켓 관리와 관람객 응대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축제를 보러오는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태프분들을 도와 축제를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소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축제의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유찬 행사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한 일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즐겼던 10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날 수 없던 경험과 활동은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축제의 다양한 모습들과 감정을 느끼며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고생과 노력이 축제를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전통, 음악과 소리가 있는 축제는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소리 축제를 마무리하며 느꼈던 성취감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열정과 소중한 추억 그리고 이런 인상 깊은 순간들을 함께 보낸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리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이왕준	명지료재단 이사장
집행위원장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부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상임위원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조직위원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신기동	한미회계법인 제1본부 본부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국장(완주 주재)
김일구	판소리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금섭	변호사(법무법인(유)광장(Lee&ko)변호사)
백학기	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영주	(주)코리아오티씨 연구소장/중구문화재단 이사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前CNN한국지국장)
심인택	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前국립민속국악원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간담체이식혈관외과)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조유식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고투자책임자(설립자)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위원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강권순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성악악장
윤종강	음악평론가/연출가
이태백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 교수
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
허윤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블랙스트링 대표
김성국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
이소영	음악평론가/음악연구소NUNC 소장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 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이은주	팀원
강민정	팀원
김영미	팀원
류선정	협력프로듀서
최나영	코디네이터

대외협력부 || 홍보팀 행사팀

홍보팀

박수경	팀장
이지환	팀원
김연아	팀원
박소영	팀원
이권미	팀원

행사팀

김경훈	팀장
전선호	팀원
김미례	팀원
전원준	팀원
김민준	팀원

행정팀

백광일	팀장
최다미	팀원
최윤희	팀원

전라북도문화산업과

정화영	문화산업과장
박병운	예술지원팀장
조경진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무대총괄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김동인	김성빈	김응완
이경채	이신실	최형범

무대크루

허 정 노경환 박성현 안현주 최상원

조명크루

김용환 박대한 정다원

프로젝트 매니저

이조은 장은옥

사이트매니저

강정윤	전 솔	조유빈	기획
박선주	오기정	김문수	문명수 문주희
박종후	양세록	양은비	유지현 유지훈
이찬형	정요한	조윤현	채동석 행사&무대

음향

최정훈	윤현철	이윤철	남아람
이정용	염승민	윤희용	모악당
이진복	김나영	김민정	유봉준 이종하
이훈재	정규현	하정호	연지홀
이동욱	백영빈	김현성	
정환기	허주선	놀이마당	
안민주	이주경	명인홀/편백나무숲	
최정훈	박경태	경기전/전주동헌	

조명

송인훈	안은서			
모악당/연지홀/명인홀				
임재덕	신 희	이다야	이지나	정호진
놀이마당				

구조물

노강섭	권순문	김효진	노시호	송재형
놀이마당/모악광장				

무대

박은혜	김대한	이상원	무대디자인
배정섭	임하라	이유진	고영인 무대제작

중계촬영

정윤성	진수미	이윤성	정다윗	정 찬
놀이마당/경기전				
고재훈	양준수	최낙일	모악당	

LED / 발전기

이성희	놀이마당 LED
박종철	놀이마당 발전기

영상

우기하	최석주	김경상	김동환	김주형
안종민	유성호	이강석	전용근	조민수
조용운	최현정	한지원		

악기

배종두 김서학 김현성 이승운 최보람

행사시설

김진형 박두산

찾아가는 소리축제

정대수 강은아 김정민 박정우 최병욱

출연진 수송

박성희 서 영

반납부스

김명자 이계순 전미정

주차

김명환 오현석 이동준

소리천사

기획팀

이슬기	정건필	구혜원	김병준	김시현
문종현	박경현	박서현	박소현	송혜주
이다은	정소망	정인교	허서연	

무대 A팀 | 모악당, 연지홀, 외부

정선운	이상재	강미성	곽서희	문서정
박수빈	양수민	윤미애	유예원	윤승현
이민형	한광은	함지현		

무대 B팀 | 놀이마당, 명인홀

이유리	김경현	김예지	강현우	김주형
나예람	박민주	박진서	변지은	설수진
오선민	이다희	이주현	임주은	임지섭
천승현				

홍보팀

박주환	이건희	강민승	강병훈	구서진
김기선	김아영	문선영	박다선	박지윤
서다민	심수경	심효진	윤준명	이가은
이재원	정성준	황예은		

행사팀

오유찬	김소리	구하운	김다윤	김찬영
김하원	김혜원	나상현	박소윤	백송이
이도경	최단우	한재영	홍상호	

행정팀

손하연	김건희	김도희	김영우	김윤하
조민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희석	본부장
이용재	사무처장

경영관리부

소정희	부장
임익중	차장
정범수	이동수 과장
최미승	대리
이성운	유민정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이안나	과장
강성웅	김미라	대리
강석민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기계감독
장정규	과장			
연혁찬	안승주	박수영	이후인	무대감독

무대운영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조중호	장준오	음향감독
박성진	차장		
송두영	과장		
정택진	김찬웅	고은빈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황이동	부장			
김미미	차장			
안은홍	함지수	김경태	노수영	이명준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적 음악 전통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는 창조적 축제			
2001	주 제	소리사랑 온누리에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총 감 독 강준혁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 연 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예술축제+산업형축제)			
2002	주 제	목소리(Voice)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현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2003	주 제	소리, 길, 만남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공 연 팀 14개국 172개팀 5,000명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2004	주 제	소리! 경계를 넘다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공 연 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2005	주 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공 연 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 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2006	주 제	소리, 놀이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2007	주 제	소리, 몸짓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2008	주 제	소리, 오락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총 감 독 안영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프 로 그 램 70개 프로그램, 225개 공연 및 행사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2010	주 제	시간을 넘는 소리, 세대를 잇는 감동	위 원 장 김명곤
	일 시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총 감 독 김정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공 연 팀 9개국 3,200여명 프 로 그 램 44개 프로그램, 213개 공연 및 행사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2011	주 제	이리오나라 UP GO 놀자!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9개국 1,616명 프 로 그 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국악대중화를 통한 소리축제의 위상 강화			
2012	주 제	소리 한 상 가득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3일 - 9월 17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8개국 1,529명 프 로 그 램 41개 프로그램 252회 공연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2013	주 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37개국 2,834명 프 로 그 램 51개 프로그램 295회 공연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2014	주 제	대마디 대장단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29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52개 프로그램 203회 공연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2015	주 제	소리 Big Part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49개 173회 공연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험,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2016	주 제	세상의 모든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60개 160회 공연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2017	주 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33개국 1,100여명 프 로 그 램 43개 165회 공연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2018	주 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8개국 1,116명 프 로 그 램 154회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예술 속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2019	주 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0개국 1,082명 프 로 그 램 132개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2020	주 제	_잇다(Link)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 연 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898명(19X19첼린지)
	프 로 그 램	5개 프로그램	
'판소리'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조명과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결집, 예술성 있는 작품 소개로 미래 20년의 분기점 마련			
2021	주 제	소리 #20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00개 단체 391명 프 로 그 램 40개 공연
'실내중심 공연 예술제'를 표방하며 공연의 질적 가치에 주목, 공연과 공연장소의 확장성 및 전통의 경향성을 제시한 축제			
2022	주 제	더듬(20th+1)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5일(10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부안 체석강 등	공 연 팀 6개국 118개팀 679명 프 로 그 램 59개 프로그램 76회 공연
전면 대면 축제로의 귀환, 정통성과 예술성 높은 다채로운 공연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한 축제			
2023	주 제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	조직위원장 이왕준
	일 시	9월 15일 - 9월 24일(10일간)	집행위원장 김희선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북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2개국 160개팀 1,105명 프 로 그 램 92개 프로그램 108회 공연